

# 대화감정평가법인, 고객 감동의 실현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5년 7월에 설립된 이후 공정하고 성실한 신념으로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으며 2007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감정평가자로 지정됐다.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사, 북부지사, 경인지사, 동부지사, 강원지사, 충청지사, 충남지사, 대구·경북지사, 경남지사, 경남중앙지사, 전북지사, 호남지사, 제주지사 등 전국 각지에 본·지사 망을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평가·보상·소송·경매·분양·담보·매각·교환 등 모든 분야의 감정평가와 부동산관리, 부동산 투자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상장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180여명의 감정평가사와 380여명의 직원이 연간 수만 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초대형 평가법인이다.

부동산의 세계화, 종합화, 증권화 추세에 발맞추어 창조와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업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초대형 우량법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지평프라자 201호(☎ 031-905-9008)에 있다. 특화된 사업분부를 통한 업



무수행, 업계 최고의 평가 전문가 풀 구성, 업계 최고의 공신력 획득 기관, 고객 최우선 중심의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감정평가사들은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용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돼 48년간 법정용어로 불렸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보상·담보 감정평가, 경매·소송 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자'라는 용어가 사용돼 평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명칭 변경을 주장해왔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화폐단위로 표시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법정 용어가 개정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